

청소년 가정환경요인이 폭력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덕조^{1*}, 조성제¹

¹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A Study on the Effects of Youth Home Environment on Violent Behavior and Suicidal Thoughts

Deok-Jo Kim^{1*} and Sung-Je Cho¹

¹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환경 요인과 폭력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거제시 O동의 청소년 남녀 430명을 대상으로 2014년 3월5일부터 7월 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는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라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 모의 지지와 의사소통, 모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youth home environment on violent behavior and suicidal though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5, 2014 to July 02 on a juvenile male and female target group of 430 people subjec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18.0 with verification at the 5% significan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of the father had a negative influence on violent behavior. Second, the support of both the father and mother,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and mother, and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uicidal thoughts. Third, the youth's violent behavi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uicidal thought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for making policies to resolve the youth crisis behaviors.

Key Words : Communication,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Family support, Suicidal behavior, Violent behavior

1. 서론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및 이유 중 폭력피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다가 (51.8%), 성격 때문에가(12.4%)순으로 나타났고, 폭력유형별 피해 경험은 욕설·폭언(56.2%), 집단 따돌림(38.2%)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의 주된 원인은 13-19세는 성적 및 진학문제(39.2%), 가정불화(16.9%)순으로 나타났고,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27.6%)과 직장문제(18.7%)로 지난 1년 동안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11.2%로 조사되었다[1].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Corresponding Author : Deok-Jo Kim(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Tel: +82-10-3569-3507 email: ilsong1018@naver.com

Received September 19, 2014 Revised(1st October 21, 2014, 2nd November 3, 2014, 3rd November 18, 2014, 4th December 1,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예방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건강행위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특히 자살 생각,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이 자살시도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2]. 청소년 자살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 문제에 대한 개입은 예방이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예방적 개입은 대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의 자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효율적 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자살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집단을 파악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3]. 이를 위해서는 자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예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살 관련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와 자존감,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원인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주변 환경이 자살 관련요인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5-13].

최근까지 진행된 청소년의 위기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 생활스트레스, 우울, 약물의 연구변인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정환경 요인(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을 기반으로 한 폭력행동 및 자살생각의 문제를 부와 모의 관점에서 나누어 분석하고자한다. 즉,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이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의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와 모의 관점에서 나누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1.1 연구문제 제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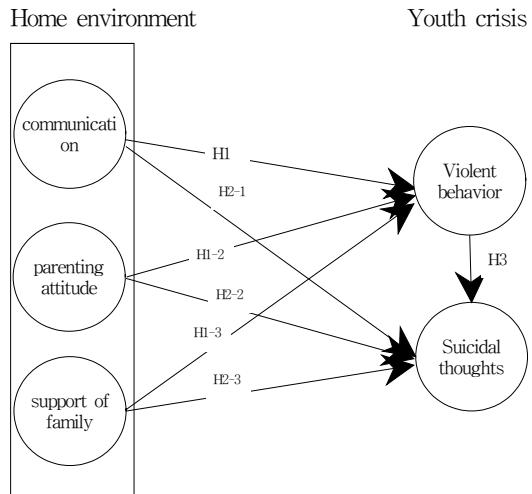
첫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연구모형

연구의 모형은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폭력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로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 매개변수를 폭력행동, 종속변수를 자살생각으로 정하여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1.3 연구가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이 연구모형을 작성하고 이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H1.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2014년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거제시 O

동의 청소년 남녀 4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지 못했거나 일부 문항의 답변이 누락된 20명을 제외한 4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134명의 표본 크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프로그램 G*Power 3.1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과 95% 검정력을, 효과크기는 중간지수 0.30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최소 표본 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41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설문조사의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8문항, 가정요인 20문항, 위기행동요인 20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척도와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도구는 유현옥[14]의 8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대, 학교성적, 가족형태, 경제적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연령은 “13세 미만”, “만13~15세”, “만16~18세”, “만19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3.2 청소년 가정환경에 관한 척도

조사도구 중 가족의 지지는 유현옥[14] 설문지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민주적 양육태도는 이시형 등[15]의 연구에서 개발, 구성된 민주적 양육태도 설문지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의사소통은 김윤희[16]가 변안 청소년 개방형 의사소통 설문지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2.3.3 위기행동 요인 척도

조사도구 중 폭행은 강은주[17]의 청소년과 관련된 행동영역의 질문지 중에서 학교폭력에 관련된 10개 문항을,

자살은 권현용[18]이 사용한 위기청소년 평가항목 중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를 부여하였다.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19]. 본 연구는 가정환경(부·모)의 의사소통, 가족지지, 민주적 양육태도가 .07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Home Environment (Father, Mother)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Name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Cronbach's α
Home Environment (Father)	Communication	51.954	0.922
	Family Support	65.205	0.784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59.766	0.811
Home Environment (Mother)	Communication	54.812	0.898
	Family Support	60.670	0.784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65.835	0.828

위기행동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폭행, 자살이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the crisis action

Factor Name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Cronbach's α
Assault	38.035	0.873
Suicide	57.115	0.887

2.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는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해 신뢰성 검정을 하였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사용 검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0.6이상이면 비교적 신뢰가 높다고 한다. 모집단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고찰하였고, 가설 검증에 의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가정의 폭력행동과 자살생각과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위기상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 후에 도출된 요인점수를 바탕으로 위기행동과의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고, 폭력행동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위기행동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Sex	Man	219	53.4
	Women	191	46.6
Age	13~15 years	204	49.8
	16~18 years	205	50.0
School	Over 19 years	1	0.2
	Middle	204	49.8
Grade	High School	206	50.2
	Grade 1	103	25.1
Family forms	Grade 2	171	41.7
	Grade 3	136	33.2
Family forms	Parents living with short summary	375	91.5
	Single-parent families (Father)	14	3.4
	Single-parent families (Mother)	2	0.5
	Remarriage home	7	1.7
	Parents died early home	3	0.7
	Other	9	2.2

성별은 ‘남자’ 53.4%, ‘여자’ 46.6%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은 ‘16~18세’가 5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3~15세’, ‘19세 이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고등학교’ 50.2%, ‘중학교’ 49.8%로 조사되었고, 성적은 중위권, 중상위권이 높았고, 이어서 가족형태는 ‘부모와 함께 생활’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가설1.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기분석표를 보면 독립변수 중에서 가족의 지지($P=0.007$)가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P=0.723$), 민주적 양육태도(아버지) ($P=0.111$)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지지가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는 폭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민주적 양육태도가 폭력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단순히 부모의 의사소통 부재와 민주적 양육태도의 문제와 별개로 사회문화적인 환경인 폭력적 게임과 영화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β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Constant	.009	.050		.186	.853
Communication	.018	.050	.018	.355	.723
Democratic Rearing	-.080	.050	-.079	-1.598	.111
Family support	-.135	.050	-.135	-2.723	.007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가 다소 부족해도 가족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Table 5]의 결과와 같다. 학생들은 위기행동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성이 낮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가족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음으로 가족구성원 간 서로를 잘 이해해 주는 노력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results

Hypoth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1-1	Communication → Violent behavior	.018	.723	Dismissed
H1-2	Father of democratic rearing → Violent behavior	-.080	.111	Dismissed
H1-3	Family support → Violent behavior	-.135	.007	Adoption

3.2.2 가정환경 요인(어머니)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요인(어머니)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분산분석표에서 F값이 1.916이고 p=0.126임으로 어머니의 지지는 폭력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의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할 수가 없었다.

3.3 가설2.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1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표의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독립변수 중에서 의사소통(P=0.000), 가족의 지지(P=0.000)로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민주적 양육태도(아버지)(P=0.075)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지지와 의사소통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Constant	-.002	.046	-.034	.973
Communication	-.237	.046	-.237	.5144
Democratic Rearing	-.082	.046	-.082	-.1784
Family support	-.311	.046	-.312	-.6783

의사소통, 가족의 지지에 따라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민

주적 양육태도가 부족해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Table 7]과 같다. 청소년들은 위기행동인 자살의도에 노출 될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results(Father)

Hypoth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2-1	Communication → Of suicide	-.237	.020	Adoption
H2-2	Father of democratic rearing → Of suicide	-.082	.075	Dismissed
H2-3	Family support → Of suicide	-.311	.000	Adoption

3.3.2 가정환경(어머니)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요인(어머니)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표를 보면 [Table 8]의 결과와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 의사소통(p=0.000), 민주적 양육태도(어머니)(p=0.022), 가족의 지지(p=0.000)는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지지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간의 대화와 자녀에 대한 양육방법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Constant	-.007	.045		-.152	.880
Communication	-.201	.045	-.204	-4.462	.000
Democratic Rearing	-.104	.045	-.105	-2.307	.022
Family support	-.333	.045	-.337	-7.380	.000

3.3.3 가설2의 검증결과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Table 9]와 같다. 청소년들은 위기행동인 자살의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Table 9]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results(Mother)

Hypoth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2-1	Communication → Of suicide	-.201	.000	Adoption
H2-2	Mother of democratic rearing → Of suicide	-.104	.022	Adoption
H2-3	Family support → Of suicide	-.333	.000	Adoption

이 의미는 어머니가 권위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아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권위적으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지하고, 신뢰할 경우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가설3.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1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위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Table 10]과 같다. 독립변수 중에서 폭력의도($p=0.000$)는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Table 10]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Constant	1.068	.109	9.780	.000
violence Intentions	.559	.084	6.633	.000

a The dependent variable : Of suicide

3.4.2 가설3의 검증결과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는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력예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중요하다.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

와 가족의 지지가 중요시 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가족의 지지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Table 11]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results

Hypoth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3	Of violence → Of suicide	0.559	0.000	Adoption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할 경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정요인이 폭력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부족해도 청소년들이 가족(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가정환경요인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폭력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위기행동인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의 의사결정권이 아버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유의미하다[20].

둘째, 가정환경요인에 따라 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족의 우애정도에 따라 청소년 폭력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옥[21]의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유의미하다.

셋째, 부모의 지지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 간의 대화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란, 김혜신[22],

박혜숙[23]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는 것과 유의미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가정환경과 폭력행동에 따라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과 폭력행동이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민주적 양육태도, 가족지지는 자살생각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의 전적인 지지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폭력행동 감소를 위해서 진솔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적 대화와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과 가족의 전적인 지지가 자살생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위해서 가족 간의 다양한 의사소통과 가족의 전적인 지지, 상호작용적 대화가 요구되고,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에서 상호믿음과 이해를 증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은 친구 또는 선, 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자살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폭력행동 예방과 자살생각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Statistical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Youth Statistics", 2013.
- [2] E. K.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Vol.38, No.3, pp.465~473, 2008.
- [3] J. H. Mo, J. H. Bae, "Factors Affecting Suicidal Behavior : Focused on Comparison Gender and Age Differe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2, pp.121~145, 2011.
- [4] S. R. Kim, E. J. Lee, S. H. Cho, S. C .Lee, S. M. Lee,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on Suicide Attempt: Effects of Stress, Self-Esteem and Depression", School counseling researc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3, pp.1049~1065, 2014.
- [5] E. K.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Vol.38, No.3, pp.465~473, 2008.
- [6] M. R. Lee, Y. J. Choi,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for stress and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relationship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5, No.2, pp.57~65, 2007.
- [7] J. Y. Kim, Y. E. Jang, J. Y. Seo, J. M.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uicidal Behaviors: Mediating Effect of in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6, No.2, pp.83~110, 2014.
- [8] B. S. Jung, "An Analysis of the Longitudinal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Male Adolescents' Patriarchical Masculinity and Violence", Studies on Korean Youth, Vol.22, No.1, pp.5~28, 2011.
- [9] S. H. Hong, U. K. No, H. J. Lee,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to Analyzing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Violence Frequency Trajectori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2, No.3, pp.175~195, 2011.
- [10] H. G .Kim,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for Adolescents with School Violence Assault", Kangwon National Humanities Institute Humanities Research, Vol.29, pp.325~350, 2011.
- [11] Y. S. Hong,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Self-Esteem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15, No.2. pp.153~182, 2004.
- [12] J. J. Kim, G. P. Ch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tres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Behavior of Adolescent",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0, No.2, pp.251~270, 2012.
- [13] H. S. Kim, "Abuse Experiences and Suicidality among Adolesc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Vol.25, No.1, pp.191~217, 2007.
- [14] H. O. You, "Predictors of School Resilience among At-risk Youth",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of seoul, 2010.
- [15] S. H. Lee,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 psychosocial adjustment”, Samsung Life community mental health institute, 1996.
- [16] Y. Hee. Kim, “Communicating with children,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fly-marital relationship, the parent Correl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9.
- [17] E. J. Kang, “The Effect of a Group Cinema to graphy Program on th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f Risk Youth”,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2011.
- [18] H. Y. Kwon, “Development of At-risk Youth Rating Scales based on the Qualitative Research of Psychosocial Factor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19] C. H. Jo,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utiliz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papers”, p.346, Cheongram, 2014.
- [20] W. S. Sao, D. G. Lee, “Impact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for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2, pp.157-178, 2014.
- [21] E. O. Park,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Department of Nursing, Cheju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 Vol.38, No.3, pp.465~473, 2008.
- [22] J. R. Kim, Kim, H. S. Kim “On youth suicide and schoo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ffec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4, pp.310-333, 2014.
- [23] H. S. Park, “The Development of an Integ rated Suicide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Korean Academy Nurse, Vol.38 No.4, pp.513~521, 2008.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7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성결대학교 산업경영학부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 융합, 복지상담,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개발, 정보보안

김 덕 조(Deok-Jo Kim)

[정회원]



- 1991년 8월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청소년 상담,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상담